

‘자기가’→‘백년손님’, SBS 터줏대감의 아쉬운 퇴장



‘자기가’부터 ‘백년손님’까지 9년 간 SBS를 지킨 간판 예능프로그램이 아쉬운 종영을 맞았다. ‘백년손님’은 2009년 6월 19일 ‘스타부부쇼 자기가’로 첫 방송된 이후 2013년 6월 6일 ‘자기가 백년

진정한 가족 의미 되새기며 시청자 사로잡아

‘손님’으로 변경, 올해 1월 13일 ‘백년손님’으로 제 변경된 뒤 지난달 29일 440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부부간의 갈등과 속 시원한 이야기 등을 다룬 ‘자기가’로 시작해 고부 갈등보다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사위와 장모·장인 사이 장서감등을 다룬 ‘백년손님’.

특히 가깝지만 어렵고도 어색한 사이였던 사위와 장모·장인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색함과 어려움의 벽을 허물며 변화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담은 ‘백년손님’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녀노소, 전 세대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이렇듯 부부간의 갈등부터 장서감간의 갈등까지 다룬 ‘스타부부쇼 자기가’와 ‘백년손님’, 또 한 편의 인기 예능이 끝나자 시청자는 볼멘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백년손님’은 추석 파일럿 예능이 정규로 편성되면서 갑작스레 종영하는 모양새를 보여 더욱 아쉬움을 남기는 상황이다.

“BTS 압도적” 9월 브랜드평판, 1위 방탄소년단·2위 손흥민·3위 블랙핑크



대한민국 스타 100대 브랜드평판 2018년 9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방탄소년단 2위 손흥민 3위 블랙핑크 순으로 분석되었다.

지 스타 브랜드 빅데이터 288,148,301개를 추출하여 대한민국 스타 100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하였다.

친구, 마마무, 손예진, 백종원, 차은우, 현빈 김태리, 뉴이스트W, 한지민, 러블리즈 순으로 분석되었다. 1위, 방탄소년단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브랜드는 참여지수 5,878,576 미디어지수 3,357,068 소통지수 9,743,347 커뮤니티지수 7,340,086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6,319,077로 분석되었다.

로 분석되었다. 4위, 워너원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오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 브랜드는 참여지수 729,872 미디어지수 2,264,554 소통지수 3,657,839 커뮤니티지수 2,048,327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700,592로 분석되었다.

개그맨, 스포츠인 브랜드평판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스타 100대 브랜드 평판분석을 보면 방탄소년단 브랜드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손흥민, 류현진, 강다니엘, 선미 브랜드가 10위안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의이혼·일억개의 별·뷰인사, 형보다 나은 아우 될까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신작 드라마들이 대거 안방에 포진했다. 그 가운데 원작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세 드라마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KBS2 ‘최고의 이혼’,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 개의 별’, JTBC ‘뷰티 인사이드’가 그 주인공.

‘연인의 얼굴이 비친다’는 핵심 설정은 유지했지만, 주인공의 성별을 바꾸는 등 작은 설정들을 고쳐 영화와 차별성을 줬다. 오는 3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새 수목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 개의 별’(송해진 극본, 유재원 연출)은 괴물이라 불린 위험한 남자 무영(서인국)과 그와 같은 상처를 가진 여자 진강(정소민), 그리고 무영에 맞서는 그녀의 오빠 진국(박성웅)에게 찾아온 충격적 운명의 미스터리 멜로를 담는다.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담을 예정. 드라마 ‘미더’의 원작자 사카모토 유지가 쓴 또 다른 히트작이기도 하다.



리진 ‘최고의 이혼’은 어떤 색깔인지 기대를 모른다. 리메이크 작품은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원

작에 대한 기대치 이상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품고 있다. ‘형만 한 아우 없다’는 속담을

뒤집고, 원작보다 나은 리메이크 작품으로 시청자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뉴시스

오늘의 운세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음력 8월 22일)

<p>▶ 쥐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기다리면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니 말없이 그때를 기다라라. 1, 3, 12월생 북쪽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힘이 돼라. 미래에 큰 덕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오늘 하는 일이 훗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듯.</p>	<p>▶ 용띠 3, 5, 6월생 지도도 없이 등산하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때가 돼 하산하는 격으로 뜻한 바가 순조롭게 진행할 징조다. 그러나 기분이 좋고 음주하면 호루라기 소리에 늦은 시간 기분 나쁠 듯.</p>	<p>▶ 원숭이띠 1, 2, 9월생은 실력을 과시할 기회가 생기니 땀 흘려 분발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ㄷ, ㅁ, ㅅ 성씨는 늦은 시간 귀가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짜증 내는 법이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줌이 좋을 듯.</p>
<p>▶ 돼지띠 동쪽에서 만나자는 사람과는 멀리 가지 말라. 5, 6, 8월생 자칫 몇 개월 뒤에 걱정거리가 생길 수. 진실로 내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ㄱ, ㅍ, ㅎ 성씨 지금 하는 일이 고달픈지 모르나 오늘 이 지나면 그 힘겨움이 행복으로 변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듯.</p>	<p>▶ 닭띠 4, 6, 12월생 애정은 이제까지 구상하던 일을 오후에 서둘러 마무리도 될 듯하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ㄱ, ㅂ, ㅅ 성씨 큰 소득이 없다고 생각한 일로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ㄱ, 소띠를 조심하면 내게 행운이 올 듯.</p>	<p>▶ 개띠 매사 신중을 기하라. 7, 11, 12월생 내 재능만 믿고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관재가 따르니 경계함이 좋을 듯. 8월생 ㄱ, ㅂ, ㅎ 성씨 내 능력만 믿고 교만하지 말 것. 주변에서 나보다 나은 실력자가 자리를 노리고 있다.</p>
<p>▶ 호랑이띠 5, 6, 7월생 동쪽으로 가면 후회 속에 나날을 보낼 것이다. 남쪽으로 행선지를 정하면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이롭다. 소, 말띠와 연행 조심. ㄱ, ㅂ, ㅎ 성씨 남에게 줄 것은 빨리 해결하라.</p>	<p>▶ 말띠 친한 사람들과 하는 일을 오늘만은 삼가라. 범띠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사할 수 있겠으나 몇 번이고 생각해 처 리토록 하라. 1, 3, 10월생 혼자 하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한 다. 힘에 겨우면 북쪽 사람과 상의하면 길하다.</p>	<p>▶ 돼지띠 직장에서 기본 좋은 날이다. 2, 3, 5월생은 승진 소식이 들릴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온다. 서쪽 음식이 소화불량의 근원이나. 조심하라. ㄱ, ㅂ, ㅅ 성씨는 육십 부리다 명예를 잃는다. 남에게 나를 낮추라. 전화위복이 된다.</p>
<p>▶ 토끼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1, 6, 9월생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듯. ㄱ, ㅂ, ㅅ 성씨 아득하게 보이던 도합지가 보이는 운. 추진하며 기다린 덕이다. 남쪽 사람과 악속한 일 성사한다.</p>	<p>▶ 양띠 9, 10, 12월생은 혼자서 힘에 겨운 일 짊, 말, 토끼띠와 손잡고 상의하면 힘이 될 것이다.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있다. 투기는 금물. 검은색이 길. ㄱ, ㅂ, ㅅ 성씨 뒷사람에게 칭찬받는 날이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라.</p>	<p>▶ 원숭이띠 꿈 심은 데 팔이 나지 않는다.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는 이치를 아는 하루로 삼으라. 삶에 도움이 되리라. ㄱ, ㅂ, ㅅ 성씨는 수입이 많아 기분 좋은 날이다. 2, 7, 10월생 군중심리에 이끌려다 자칫 관재수에 휘말린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하라. 꽃이 피기도 전에 꺾이는 격이니 조심하라.</p>